

'토종과학자' KAIST 유희준 교수, IEEE 석학회원 선임

한국에서 반도체를 연구해온 토종과학자인 KAIST(총장 서남표) 전자전산학과 유희준(47) 교수가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최고 영예인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됐다.

유 교수는 4일 오전(미국 태평양 표준시)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호텔에서 시작된 2008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ISSCC 2008) 시상식에서 '저전력 초고속 초고집적회로(VLSI) 설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IEEE 펠로우에 선임돼 4천여명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펠로우 증서를 받았다.

IEEE는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로 매년 회원 가운데 연구 업적이 뛰어난 최상위 0.1% 이내 회원을 석학회원에 선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KAIST 전자전산학과 김충기(64) 교수 등 10여명이 선임됐다.

1988년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산업체를 거쳐 1998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유 교수는 '저전력 3차원 영상처리'와 '칩 상 네트워크 설계기술', '인체 매질 통신 칩'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지난 8년간 IEEE ISSCC에 17편의 논문을 발표, 연평균 최다 발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IEEE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국제 학술지 등에 18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4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DRAM의 설계'와 '고성능 DRAM', 'Networks on Chips' 등 메모리 설계와 칩 상 시스템(SoC) 설계 관련 저서도 저술했다.

유 교수는 이밖에 IEEE ISSCC의 집행위원회 이사로 극동지역 사무총장과 IEEE VLSI 심포지엄학회 집행위 이사를 맡고 있으며 IEEE A-SSCC 운영위 이사로 2008년도 학술대회 대회장으로 예정되어 있다.

유 교수는 석학회원 증서를 받은 뒤 "한국에서의 교육과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뿌듯하다"며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